

■ 황금알 낳는 스포스십 규모

세계 100대 기업 35% 참여 연간 후원금만 2조원 달해

LG전자 브랜드 선호도 15% 상승 영암 F1 타이틀 스폰서 확보 못해

지난 10일 열린 일본 스즈카 그랑프리를 결승전. 전국에서 몰려든 9만6000명의 관중들로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이 들쭉거렸다. 출발 신호와 함께 24대의 머신(Machine·F1 경주차)이 일제히 출력을 최고로 높이며 5.807km의 서킷을 향해 뛰쳐나갔다.

몇 분이 지났을까. 세바스찬 베텔(레드불 레이싱팀)이 시속 300km의 속도를 넘나들며 내달리다 피트(Pit·차량 정비공간)에 들어왔다. 베텔의 머신 중앙 위쪽과 리어윙에는 LG 로고가 붙어있었다.

10여명의 피트 크루(pit crew·정비요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2.9초 안에 타이어 4쌍을 교환하는 '예술'을 놓치지 않으려는 관중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피트스트립 한 복판에 LG 로고가 선명히 박혀있었다. 이 장면은 전세계 128개국에 생중계됐고 시청자 수만 6억명에 이른다.

LG전자는 지난 2009년부터 F1 대회를 후원한 이후 영국·프랑스·브라질 등 선진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브랜드 선호도가 15%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올림픽·월드컵 축구와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로 꼽히는 F1 대회. 대회 하나 평균 관람객이 20만명에 이르고 연간 관람객만 400만명을 육박하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다. 전 세계에서 TV로 F1 대회를 시청하는 인원은 연간 400억명이다. LG를 비롯, 글로벌 기업들이 브랜드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목을 매는 이유다.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 중 35%가 F1 대회 스폰서십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다. 이들 업체들의 연간 후원금액만 2조원에 이른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한 F1 대회 스폰서 참여업체는 글로벌·로컬 스폰서를 포함해 232개. 자동차업체(10개)·오일(10개)·IT(76개)·타이어 등 자동차부품(39개)·음료(9개)·통신(10개)·금융(4개)·미디어(2개) 등 전 분야를 망라한다.

LG전자는 지난 2009년부터 F1 대회를 후원한 이후 영국·프랑스·브라질 등 선진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브랜드 선호도가 15%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미디어 노출에 따른 홍보효과는 분당 12억원.

이 때문에 머신에 붙는 광고는 고작 9곳이지만 브랜드 노출 비용에 따라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엔진 커버는 1100억, 타이어는 130억, 프론트 위 165억, 리어윙 160억, 운전석 광고는 540억에 이른다. '황금으로 깔려있는 게 F1 서킷'이라는 말도 나온다.

LG는 F1 대회의 글로벌 스폰서이면서 올해 레드불 레이싱팀도 후원, 경주차 중앙과 리어 윙에 브랜드를 노출하고 있다.

반면, 코리아 그랑프리에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현재 한국 대회 타이틀 스폰서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국내 기업들의 스폰서 참여도 적극적인이지 않다. F1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경주장 준공 일정이 계획보다 늦춰지면서 개최 여부를 놓고 국내외에 불안감이 커져 기업들이 올해 관람세로 돌아선 것도 한몫을 했다.

KAVO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VIP들의 사교공간인 '패독(Paddock 클럽)'과 기업 스카이를 이용하는 VIP가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 F1 특별취재팀=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암 F1 서킷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메인 관람석내 중계방송실과 미디어센터간 연결통로가 한국의 미를 물씬 풍기는 한식육교로 준공됐다. 남쪽 망루는 한라정, 북쪽 망루는 백두정으로 명명해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국의 美 물씬 풍기는 한옥육교 영암 서킷 랜드마크 연결통로 준공

영암 F1 경주장(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메인 관람석내 중계방송실과 미디어센터간 연결통로가 한국의 미를 물씬 풍기는 한식육교로 준공됐다.

19일 F1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FIA(국제자동차연맹)의 서킷 최종 검수 이후 경주장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서킷을 횡단하는

한식육교가 완공됐다. 서킷의 북쪽에 위치한 메인 관람석과 남쪽에 위치한 레이싱 컨트롤 빌딩간 연결통로인 한식육교는 한국적 정취를 풍기는 전통 건축 양식을 도입, 영암 서킷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의 서킷의 경우 대회운영상 메인 관람석내 중계방송실과 미디어센터를 수시로 통행할 수 있는 서킷 횡단

통행로가 지하에 설치돼 있으나 영암 서킷은 연약지반인 점을 감안해 육교 형식으로 설치됐다. 또 영암 서킷 남쪽 망루는 한라정, 북쪽 망루는 백두정이라 이름을 붙였으며, 두 망루를 잇는 소통의 연결다리를 세워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F1조직위 관계자는 "영암 서킷은 한국 모터스포츠를 대표할 신개념 퓨

전 레이싱 트랙으로 세계적인 명문 서킷들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F1 트랙 남단에 구성된 마라나 구간은 아름다운 바다를 지나는 절경을 자랑한다"며 "전통건축 양식을 적용한 한식육교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상징물로 자리잡게 될 것"고 말했다.

/영암 F1 특별취재팀=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F1 알고 보면 재미 두배

③ 서킷

시속 320km 직선 코스 1개·곡예 레이스 18개 코스로 구성

F1 서킷(경주장 트랙)은 속도경쟁으로 승부를 가르는 F1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다. 통상 1년에 17~20개 서킷에서 F1 그랑프리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코리아그랑프리 열리는 영암서킷을 포함해 모두 19개 서킷에서 대회가 열린다.

F1 그랑프리는 대회당 300km 정도를 주행하는데 가장 짧은 서킷은 트랙 길이가 3.340km인 모나코의 몬테 카를로 서킷으로 모두 78바퀴를 주행

한다. 가장 긴 벨기에 스파 프랑코샹 서킷은 7.004km로 44바퀴를 돌아 308.05km를 달리게 된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영암서킷은 길이가 5.615km로 55바퀴를 주행하게 된다. 트랙 길이는 세계에서 3번째, 아시아에서는 가장 길다.

1.2km의 직선 코스에서는 최고시속 320km로 달릴 수 있다. 직선 코스를 제외하면 18개 코너로 구성돼 있는데 이곳에서는 급브레이크와 급가속을

반복하며 아찔한 레이스를 벌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영암서킷의 가장 큰 특징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달리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드라이버들이 주로 쓰는 근육의 반대를 써야하기 때문에 고도의 체력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시계방향 주행에 익숙한 드라이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방향 서킷은 영암을 포함해 5곳에 불과하다. /장필수기자 bungy@

■ F1 이모저모

2000여명 집 푼 목포 도심 외국인들로 북적 F1 관람객 전남지역 골프장 그린피 할인혜택

○F1 코리아그랑프리 열 앞두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속속 도착하면서 숙박시설이 몰려있는 목포는 외국인들로 물결을 이루고 있다.

계막을 사들인 19일 현재 목포에 집을 푼 F1대회 관계자들은 모두 2000여명으로 이들은 낮에는 영암 서킷에서 대회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밤에는 숙소가 있는 목포로 나와 '목포의 밤'을 만끽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목포 평화광장에 있는 일부 업소는 마치 유럽의 '호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외

국인들이 들어차 업소 밖 인도까지 나와서 맥주를 들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계막 전까지 FIA(국제자동차연맹) 및 F1팀 관계자 등 1000여명 이상의 외국인이 더 들어올 예정이다. 외국인 관람객까지 몰리면 '목포 속 외국적인 풍경'은 결승전이 열리는 24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F1대회에 참가한 12개 팀 드라이버와 F1머신을 유심히 살펴보면 24명의 드라이버와 24개의 머신이 모두 다른 고유 번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올해 시즌 1번은 맥라렌의 젠슨 버튼이, 2번은 같은 팀의 루이스 해밀턴이 받았으며 3·4번은 메르세데스의 미하엘 슈마허와 니코 로스베르크가, 5·6번은 레드불의 세바스찬 베텔과 마크 웨버, 7·8번은 페르난도 알론소와 페렐레 마사가 받았다.

이들 드라이버가 받은 고유 번호는 지난해 시즌의 성적에 따라 정해진다. 1번은 지난해 시즌의 드라이버즈 챔피언, 2번은 1번 드라이버의 팀 동료에게 배정되고 3번부터는 지난해 시즌의 컨스트럭터즈(팀) 챔피언십

순위가 기준이 된다. 컨스트럭터즈 챔피언은 팀내 두 드라이버의 시즌 성적을 합산해 결정된다.

슈마허가 3번을 받은 이유는 지난해 컨스트럭터즈 1위 팀 브라운GP가 메르세데스로 바뀌었기 때문인데, 슈마허는 이로 인해 3년 동안 공백기를 보내고 F1에 복귀하면서도 앞자리 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F1 대회기간중 전남지역 골프장을 이용하는 관람객과 F1 관계자에게 가격적인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오는 22~24일 F1대회 관람객과 관계자들이 관계자로나 티켓을 지참하고 도내 26개 골프장을 방문하면 그린피 및 골프텔 이용료를 10~2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훈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F1을 관람하는 국내외 골프들에게 전남의 골프환경을 알리기 위해 할인 상품을 만들었다"며 "F1경주도 관람하고 남도의 아름다운 필드를 감상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세계가 부러워하고 인정한 건강선진국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2009년 세대당 월 **6만7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13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암, 뇌혈관·심장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이 **OECD 30개국 중 5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균수명(80.1세)이 OECD 국가 평균(79세) 이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MINISTRY OF HEALTH & WELFAR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고객센터 ☎ 1577-1000

초청합니다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2010년도 정기총회

- 일시 : 2010. 10. 21(목) 오후 6:30
- 장소 : 조선대학교 서석홀 4층
- 문의 : 228-0197~8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신 흥 수